

# 파시즘과 노동운동

김세균(전 서울대학교수, 정치학)

박근혜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후퇴, 유신체제의 부활, 새로운 파시즘체제의 등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파시즘적 반동화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주된 발전 경향인가? 이런 발전 경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1. 국가유형, 국가형태, 국가레짐

- 파시즘은 크게 보아 두 개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 (1) 자본주의국가의 한 형태 내지 국가체제로서의 파시즘 (파시즘적 국가체제 내지 파시즘 체제)
- (2) 파시즘적 정치(사회)운동 내지 대중운동으로서의 파시즘

### 1.1. '국가의 역사적 유형' 내지 '국가유형' 수준의 자본주의국가체제

고대 노예제 국가, 중세 봉건제 국가, 사회주의 국가 등과 구분되는 의미의 자본주의사회의 국가: '국가 일반'과 구분되는 '자본주의 국가 일반'의 공통된 특징과 기본적 기능

### 1.2. '국가형태' 수준의 자본주의국가체제

- 자본주의국가 변화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 '가장 민중배제적인 자본주의국가체제(최저한도)'에서 '가장 민중통합적인 자본주의국가체제(최고한도)'까지

-> ① 최저한도의 자본주의국가: 대중에게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권리 이외의 다른 권리들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국가체제 (역사적으로는 독일의 나치즘체제가 최저한도의 자본주의국가에 가장 가깝다)

② 최고한도의 자본주의국가: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자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유보없이 보장하는 국가체제 (역사적으로는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소득재분배국가'가 최고한도이 자본주의국가에 가장 가깝다.)

-> 자본주의국가는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 변화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 내에서 운동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최저한도 보다 더 민중억압적인 체제로 변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이중권력체제'의 등장과 같이 최고한도를 넘어 운동하기도 한다.

- 역사적 현실에 출현한 모든 자본주의국가체제에는 민주국가적 요소들과 비민주국가적 요소들이 섞여 있다.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민주국가와 순수한 의미의 비민주국가란 역사적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국가 요소들이 지배적인가, 아니면 비민주국가 요소들이 지배적인가에 따라 자본주의국가는 크게 보아 자본주의국가의 '민주적 형태'와 '비민

주적 형태'로 대별될 수 있다.

- 민주적 형태는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로, 비민주적 형태는 '부르주아지의 공개적으로 독재적인 지배체제' 등으로 명명될 수 있다.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파시즘체제는 일차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의 비민주적 형태의 하나로 문제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① 보통, 비밀, 평등선거를 통한 주요 공직자 선거와 대의제 민주주의, ②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평화적 방식으로 추구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정치적 다원주의), ③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주의적 시민권의 보장, ④ 노동3권의 보장 여부이다. 유의할 점은 민주주의체제와 비민주주의체제를 나누는 이 지표들이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기준'이라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 역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수탈을 보장하는 비민주주의체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적 형태는 다시 '발전된 민주주의체제'와 '제한적 민주주의체제' (내지 '권위주의적' 또는 '준파시즘적' 민주주의체제)로, 비민주적 형태는 다시 '전형적 비민주주의체제'와 '완화된 비민주주의체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민주적 형태의 비민주적 형태로의 전환' 또는 역으로 '비민주적 형태의 민주적 형태로의 전환'은 자본주의국가라는 국가의 기본적 성격이 유지되는 한계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혁명 또는 정치적 반혁명이며, 사회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양상 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 1.3. '국가레짐' 수준의 자본주의국가체제

- 자본주의국가는 더 나아가 특정국가가 어떤 자본축적전략과 (계급갈등규제전략이 주축을 이루는) 사회갈등규제전략을 추구하는 가를 기준으로 국가체제를 부류할 수 있는데, 이런 분류는 특정 국가가 국가레짐 수준에서 어떤 국가체제인가를 문제삼는 것이다.

- 국가가 어떤 국가형태에 속하는 가는 국가레짐 상의 국가가 운동하는 가장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건이 된다.

- '신자유주의 국가체제', '사민주의국가체제' 등의 국가구분은 국가레짐 수준의 국가 구분에 속한다. 파시즘체제는 '신자유주의적 파시즘체제', '발전국가적 파시즘체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파시즘체제의 성립과 특징

- 역사적으로 출현한 자본주의국가의 비민주적 형태에는 19세기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3세(루이보나파르트 3세) 독재체제가, 제1차세계대전 이후와 제2차세계대전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체제와 독일의 히틀러체제 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한국의 박정희 군사독재체제와 칠레의 피노체트 군사독재체제 등이 있다.

-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에 성립한 루이보나파르트 3세의 독재체제는 이후의 전형적인 파시즘체제와는 많은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그 성립의 조건과 수행한 역할 등에서 이후의 파시즘체제와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체제와 독일의 히틀러체제는 가장 전형적인 파시즘체제로 불린다. 이와는 달리, 박정희체제와 피노체트체제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가에 출현한 군사독재체제를 파시즘체제로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① 파시즘적 대중운동 등에 기반하여 성립한 무솔리니체제와 히틀러체제 등만 파시즘체제로 봐야 한다는 견해

② 신흥공업국가의 군사독재체제의 정치형태, 사회과정에 대한 개입방식과 역할 등이 크게 차이가 없는 만큼, 성립의 경로에 차이가 있지만 이 체제들 역시 파시즘체제로 봐야 한다는 견해. 이 견해에서는 파시즘을 ‘밑으로부터의 파시즘’과, ‘위로부터의 파시즘’ 등으로 구분한다.

나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

## 2.1. 파시즘체제의 성립

### (1) 나폴레옹 3세(루이보나파르트3세) 독재체제: 전파시즘 독재체제

- 나폴레옹 3세 독재체제의 성립을 가능케 한 물질적-사회적 조건 등은 이후 파시즘체제의 등장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 ① 1792.9. 프랑스 제1공화정/ 1793.1. 루이 16세 처형/ 1793년 1월 로베스피에르 독재

② 1799-1815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통치시대) 제1총통 취임/ 1804. 황제 취임, 프랑스 제1제정

③ 1815-1848 (왕정복구, 입헌군주제) 1830년 혁명. 루이 필립 집정. 1832년 6월 폭동

④ 1848년 2월 혁명, 제 2 공화정 수립/ 6월 노동자봉기/ 1848년 12월 선거에서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 대통령에 당선/ 1851년 12월 궁정쿠데타 감행, 국민의회를 해산, 1852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프랑스 제2제정의 황제로 등극 / 1870-1875 : 프랑스와 프로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알시스, 로렌 지방 빼앗김. 나폴레옹 3세의 패위. 파리 코뮌(1871년). 제 3공화정 시작해 오늘까지.

- 1840년대 후반의 경제불황 / 민주주의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과 노동자 봉기와 사회주의 운동의 신장 등 첨예한 계급갈등의 지속 / 노동운동 등에 대한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중간층의 불만의 증대 / 노동운동/사회주의운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국가’를 요구하는 사회부르주아들의 의회부르주아세력에 대한 불만의 증대 등이 배경을 이룬다.

이런 배경 속에서 출세를 지향하는 사회적 불만분자들과 룬펜 지식인 등을 끌어모아 정파를 형성, 프랑스 영광의 재현 등을 내세우며 농민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 당선된 이후 노동운동/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중간층의 불만을 자극하고,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주면 사회부르주아지들에게 당신들의 적’을 일거해 제거해 주겠다고 회유, 이들의 지지를 받아낸 것을 바탕으로 궁정쿠데타를 감행 민주공화국을 폐기하고, 이후 황제로 등극한다.

- 나폴레옹 3세 독재체제 수립을 가능케 한 계급적 역관계를 Marx는 “루이 보나파르트 무월 18일”이라는 글에서 “**부르주아지의 더 이상 능력 없음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아직 능력 없음(Nicht-Mehr Faehigsein der Bourgeoisie und Noch-Nicht Faehigsein des Proletariats)**”로 표현했다. 이 지적은 ‘부르주아지가 더 이상 지배할 능력을 잃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아직 지배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 상태’를 가르키는데,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자본주의사회의 양대계급 중 어느 하나의 계급도 확고한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형세 속에서는 그 틈새를 타고 (일반적으로는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에 포섭되어 있는) 중간층이 자신을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조직해, 양대계급을 제치고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파악에는 루이 보나파르트체제가 그 자체로서는 부르주아지의 계급지배체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지배체제도 아닌 중간층 지배체제라는 ‘제3계급의 지배체제’라는 관점이 들어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 지배체제는 그 자체로서는 제3계급의 지배체제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체제이므로 이 지배체제가 지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한 ‘구조적 종속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르주아지배체제로 기능하게 된다.)

나는 이런 파악에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유지-재생산을 추구하는 한 그 정치세력이 어느 계급-계층 출신이고 어느 계급-계층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부르주아정치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부르주아정치세력은 크게 보아 ① 의회민주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세력과 보수주의세력 등의) 부르주아민주주의세력과, ② 파시즘세력과 같은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에 적대적인 반민주적 부르주아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루이보나파르트세력은 그 자체로서는 제3의 정치세력이라는 마르크스의 파악과는 달리 ‘반민주적 부르주아세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말한 “부르주아지의 더 이상 능력 없음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아직 능력 없음(Nicht-Mehr Faehigsein der Bourgeoisie und Noch-Nicht Faehigsein des Proletariats)”은 “부르주아지가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로써는 더 이상 지배할 능력을 잃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사회변혁을 실현시킬 능력을 아직 지니지 못한 상태”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할 능력을 지닌 비민주적 부르주아세력이 형성된다면 국가체제가 민주적 형태에서 비민주적 형태로 국가형태변경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 (2) 무솔리니체제와 히틀러체제의 성립

### 1) 무솔리니체제

- 배경: / 1차대전 당시 나중에 연합군 편에 섰, 그러나 영-불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함 (“모욕당한 승리”) / 1917년 11월 볼셰비키혁명/ 제1차세계 대전 이후 노동운동-사회주의 운동의 고양/ 구중간층의 대거 몰락과, 노동운동-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이들의 적대감의 증대 등

- 무솔리니, 애초 사회주의자로 출발, 1차대전 이후 사회주의를 버리고 이탈리아의 재건과 같은 애국주의적-민족주의적 의식에 경도되면서 1919년 3월 23일 밀라노에서 계급적 분열과 계급투쟁에 반대하는 200여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파쇼단 《일 파르시 이탈리아니 디 콤파티멘토》(이탈리아어: Il Fasci Italiani di Combattimento, 파쇼 이탈리아 전투 분대)을 창립 / 이후 ‘검은 셔스단’을 조직, 주로 노동운동/사회주의운동을 진압하는 행동대로 활동하면서 세력을 키우다가, 1922년 10월 27일에서부터 29일까지 로마 진군을 감행, 군부, 자본가, 그리고 우익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가운데 10월 28일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의 권력획득을 인정 / 1922년 이후 이탈리아 왕국의 국무총리였다. 1925년부터 무솔리니는 최고통치자를 뜻하는 두체(Duce)라는 칭호를 사용.

- 등장배경 등이 루이보나파르트3세 독재체제 등장과 유사하다. 단지 체제위기의 강도, 노동운동-사회주의운동의 성장 수준 등이 훨씬 높으며,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총동원체제를 조직하는 데에 성공했다.

## 2) 히틀러체제

- 배경: 무솔리니체제 성립 배경과 유사/ 전쟁 패배로 인한 독일인들의 치욕감, 게르만민족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의식의 팽배 / 사회주의세력의 분열, 우파와 좌파는 서로 적대시하면서 우파는 부르주아세력과의 협조와 합법주의 노선을 절대화한 반면 좌파는 '사회파시즘' 등을 제기. 경제공황, 구중간층의 대거 몰락과 실업층의 급증 등
- 히틀러, 1919년 9월 독일 노동자당(Deutsche Arbeiter Partei, DAP)에 입당/ 1920년 2월 24일, 짧게 '나치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독일어 약자로 NSDAP)으로 개명/ 1929년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살아나던 독일 경제는 실직자 수가 6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큰 타격을 입는 가운데 나치당이 선거에서 18.3%의 득표, 독일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된다. 그러나 연립내각에 입각하기를 거절하고 나치스의 단독 집권을 요구/ 히틀러는 1932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여 1,340만 표(36.8%) 득표했지만, 파울 폰 힌덴부르크(원래는 장군) 후보에게 패배.또한 **7월 총선거에서는 37.3%를 득표하여** 압도적인 당세를 과시하면서 여전히 연립내각에 참가 거부 / **11월 총선거에서는 33.1%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공산당의 도약에 놀란 보수세력과 자본가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대통령 힌덴부르크, 1933년 1월 30일에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 히틀러정권은 보수파와 군부의 협력을 얻어 좌파 세력,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파 인사 등 반대파를 감금, 납치, 암살, 고문, 불법적인 재판과 처벌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고, 1933년 7월 일당독재(一黨獨裁) 체제의 기틀 확립. 1934년 8월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죽자 국민투표를 실시, 총리가 대통령의 지위를 겸한 '총통'(Fuehrer)이 된다.
- 나치 조직 내부의 권력 재편에도 착수해 1934년 6월 30일에는 '장검의 밤 사건'을 일으켜 나치 돌격대 지휘관 에른스트 뢰름을 제거한 데 이어서 '바르톨로메오의 밤 사건'을 일으켜 권력 등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전임 총리 슈라이허 장군도 제거.

## (3) 전후의 군부독재체제

### 1)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체제

- 반북반공
- 이른바 개발독재체제로 기능, 장시간/저임금노동/ 농민수탈 등에 기초한 국가주도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강행, 독점자본주의체제로의 조속한 이행 추진.
- 노동운동을 비롯한 기층민중운동의 성장-발전 억압

### 2) 칠레의 피노체트군사독재체제 (1973~1990년)

- 1970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아옌데가 칠레 사회주의정당들의 연합 정당인 인민 연합(스페인어: Unidad Popular, 칠레 사회민주당과 칠레 공산당의 연합 정당) 후보로 출마. 34.9% 지지를 받은 호르헤 알레산드리 전 대통령을 누르고 36.2%를 득표하여 근소한 차로 승리. 의회에서 행한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 (아옌데정권 하의 칠레는 일종의 '이중권력' 상태로 규정가능함.
- 1973년 3월 전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아 다시 당선되어 그의 사회주의지향적 개혁정치가 계속될 것이 분명해지자 군부는 1973년 9월 11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칠레 쿠데타를 일으켜 세계역사 최초로 선거를 통해 집권해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추구한 아옌데정권을 쿠데타로 붕괴시킴

- '피의 독재'라는 별명이 붙음. 칠레 정부의 과거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피노체트의 17년간의 독재로 약 3,197명에 이르는 학살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고문 피해자도 수 만 명이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자도 1,197명에 달함. 탄압당한 사람들은 칠레 공산당과 칠레 사회당 등의 좌파정당 인사, ]군사독재에 반대하여 결성된 공산당계 조직인 '애국전선' 용의자와 그들의 동조자, 살바도르 아옌데정권 당시 공직 역임한 자 등임.

## 2.2. 파시즘적 대중운동

- 몰락하는 구중간층과 롬펜프롤레타리아트가 중심이 되고, 사회의 계급적 대립 등에 적대적이고 민족지상주의적 성향을 지닌 뿌디부르주아적 '반금권 반노동' 운동으로 출현/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노동의 계기가 강화되고, 반자본의 계기는 갈수록 약화되다가 보수세력과 자본가의 지지를 획득하면서부터 '반민주적 부르주아세력'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격을 진화시킨다.

## 2.3. 파시즘체제의 특징과 역할

- 민족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당지배체제의 구축  
- 시민권의 부정, 사회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억압체제 구축,  
- 체제를 위협하는 노동운동/사회주의운동의 척결 또는 이 운동의 성장-발전을 저지  
-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기제로 기능, 독점자본의 이익 옹호 또는 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 촉진

## 3. 파시즘체제의 재성립 가능성은?

- 파시즘의 대두의 일반적인 조건:

자본축적의 위기, 계급대립의 격화. 높은 인구비중의 구중간층의 존재 및 실업층의 급증 및 노동운동/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이들의 거부감의 증대,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회적 힘의 약화 등이다.

-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사회내부의 계급대립이 첨예화된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구중간층이 이미 거의 몰락한 유럽에서는 파시즘체제가 재성립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체제의 실질적 파쇼화 등이 일어나는 나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권의 중심세력은 공안세력 등 유신체제를 지탱한 구 파시스트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유신체제의 재수립 등을 회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현재의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선상에서 체제의 실질적 파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한국 정치체제는 '준파시즘적 부르주아민주주의체제'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박정권은 언론의 자유 등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고, 국보법과 업무방해죄 및 집회시위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활용한 '준파쇼적 대중억압'과 더불어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같은 '경제적 내지 시장주의적 통제'를 대중통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재파시즘화를 막으려면, 노동운동/진보정치는 무엇보다 ①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구중간층 등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고, ② 군부 민주화를 위해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다.